

---

---

# 『조선사 개요』(1957)의 早期 봉건사회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

---

이 정 빈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

## 머리말

- I. 『개요』의 早期 봉건사회설
  - II. 『개요』와 조선사강좌의 인적 구성
  - III. 조선사강좌의 학문적 지향과 변화
-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28381).
- 투고일: 2020. 2. 19.    ● 심사일: 2020. 2. 25.    ● 게재확정일: 2020. 3. 5.
- <https://doi.org/10.31218/TRKH.2020.03.137.49>

## 요약

1957년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에서 간행한 『조선사개요』를 검토했다. 특히 『개요』에서 早期 봉건사회설을 채택한 데 주목해 그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1950년대 중·후반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삼국시기를 전형적인 노예제사회로 본 백남운의 한국 고대사 연구와 체계가 도전받고 있었다. 『개요』의 초기 봉건사회설은 그 일면을 보여준다. 『개요』의 필진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교수진으로,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이 다수였는데, 이들은 1930년대~해방 전후 조선의 주류 마르크스주의자와 연줄이 이어져 있었다. 『개요』의 초기 봉건사회설은 그로부터 배태된 것으로, 조선사강좌의 학문적 배경과 특징을 반영했다.

해방 이후 북한의 역사학계는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학자 그룹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그룹으로 양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계의 주축은 후자였다. 후자는 다시 세계사적 보편성을 추구한 그룹과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초기 봉건사회설은 후자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사료비판과 이를 통한 실증을 중시했다. 그리고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반봉건의 현실 속에서 소련의 소비에트 제도 수용이란 비약을 추구한 것이다. 그 역사적 사례의 하나가 삼국시기였다. 삼국시기 漢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원사회에서 도약해서 초기 봉건사회를 형성하였다는 이해였다. 한국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단기간의 비약 내지 도약을 전망한 것이다. 해방 이후~1950년대 중·후반 김일성종합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이자 조선사강좌가 공유한 학문적 지향이었다.

주제어 : 『조선사개요』, 早期 봉건사회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 머리말

해방 직후부터 북한 정권은 종합대학 창립을 추진했다.<sup>1)</sup> 1945년 11월부터 대학기성회를 조직했고, 1946년 10월 1일에 김일성종합대학 창립을 선포했다. 김일성은 종합대학을 먼저 창설하고 이를 모체로 각지에 다수의 대학을 세우고자 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이른바 민족간부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통해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을 탐구하고자 했다.<sup>2)</sup> 학교의 제도와 운영이 주된 관심사였다.

김일성은 종합대학의 창립 과정에서 조선의 언어와 지리와 함께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sup>3)</sup>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한국사 연구와 교육이 갖는 비중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부진한 형편이었다.<sup>4)</sup> 역사교육 방면에서도 중등교육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 
- 1) 구체적인 과정은 김일성종합대학, 1956,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16~27쪽; 김창호, 1990, 『조선교육사』 3, 사회과학출판사, 100~107쪽 참조.
  - 2) 김근배, 2000,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김기석, 2001, 『一卵性 雙生兒의 탄생, 1946-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신호숙, 2003,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 및 고등교육」,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출판사; 정근식·김윤애·임수진, 2017,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회석화」, 『아시아리뷰』 7-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선호, 2020, 「국가건설기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김선호, 2020, 앞의 논문, 359쪽의 주3 참조.
  - 3) 김창호, 1990, 앞의 책, 105쪽.
  - 4) 이와 관련하여 김광진의 삶과 연구를 추적한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 홍종욱, 2016,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역사학보』 232.

본고에서는 1957년 발행된 『조선사개요』(이하 『개요』)를 주목하고자 한다.<sup>5)</sup> 『개요』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의 교수진이 저술한 것으로, 그의 본격적인 첫 교재였다. 물론 『개요』에 앞서서 몇몇 통사적 저술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저술은 대부분 전쟁 중에 편찬되었기에 여러 면에서 제한적이었다. 대학교재를 목적으로 한 저술도 아니었다. 이와 비교해 『개요』는 교수진의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저술된 것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창설 10주년의 성과이기도 했다. 더욱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역사학 전공 교수와 졸업생은 고등교육 이하 역사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sup>6)</sup> 따라서 그 교재였던 『개요』는 해방 이후부터 대략 1950년대까지,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 역사교육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대상으로서도 적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전의 통사적 저술과 비교해 『개요』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자 하는데, 이른바 早期 봉건사회설에 집중해 볼 생각이다. 다음으로 『개요』 집필자인 조선사강좌 교수진의 인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봉건사회설의 학문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1950년대 북한 역사학계의 대략적인 지형 속에서 조선사강좌의 학문적 지향과 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 『개요』의 早期 봉건사회설

『개요』는 총3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고대사와 중세사 분야를 중심으로 하였다. 1876년 이후의 근세사·근대사는 추후 속편에서 서술할 계획

---

5)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조선사개요』, 국립출판사(1996, 한국문화사 영인, 海外우리語文學研究叢書78).

6) 김선호, 2020, 앞의 논문, 377~378쪽.

『조선사 개요』(1957)의 早期 봉건사회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이었다고 한다.7) 이 중에서 제2장의 장절 목차가 주목된다.

제2장 봉건 관계의 발생 · 고조선과 삼국의 형성

제1절 기원전 4~3세기의 고조선과 한사군: 고조선, 단군신화, 한사군

제2절 고구려 국가의 형성: 고구려족, 봉건 관계의 형성, 고구려 국가의 성립

제3절 백제 국가의 형성: 마한 종족들, 3세기의 백제 국가

제4절 신라 국가의 형성: 진한 종족들에 있어서의 봉건 관계의 장성, 신라 국가의 형성

제5절 육가야: 변진족, 육가야

제1장 「원시 공동체 제도」에 이어 제2장에서 「봉건 관계의 발생: 고조선과 삼국의 형성」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국가 형성에서 봉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설정은 다음과 비교된다.

【표 1】 1950년대 전 · 중반 북한의 주요 통사적 저술 中 고대사 분야 목차

구분	고대사 분야 장절 목차
「조선인민력사강좌」(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0)	제1편 원시공산제사회로부터 봉건국가 성립까지 제1장 원시공산제사회 제2장 고대국가발생과정 제1절 고조선과 위씨조선 제2절 예맥과 부여 제3절 옥저와 읍루 제4절 삼한 제3장 고대국가 제1절 고구려
『조선력사』(NARA 소장)	제1장 조선의 원시공동체

7)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25쪽.

	제2장 고대국가의 발생과 발전 제1절 고조선과 위만조선 제2절 예맥, 부여, 삼한 제3절 고구려
『조선고대사』(1951,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2, 연변교육출판사)	서론 1.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시 씨족 공동체의 유적 2. 고조선 위치에 관한 몇가지 문제 3. 사회적 구성과 계급적 본질 제1장 고대 국가의 발생과 발전 제1절 고조선 제2절 예맥과 부여 제3절 삼한 제4절 고구려 제5절 백제 제6절 신라 제2장 삼국의 발전
『조선통사(상)』(1956)	서론 제1장 원시 공동체 사회와 그 붕괴, 고조선 제2장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형성과 발전 제3장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 제4장 신라에 있어서의 봉건 관계의 발전

이상은 『개요』보다 먼저 저술된 북한의 주요 통사적 저술이다. 우선 「조선인민력사강좌」에서는 고조선이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고대 노예 제국가로 출발하였다고 했는데,<sup>8)</sup> 제3장 「고대국가」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고대 국가는 삼국시기로 파악하였다.<sup>9)</sup>

이러한 이해는 『조선역사』(NARA 소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되었다. 이 책에서는 “기원전 3~2세기 조선 남북의 제종족은 이미 오래 전에 씨족공동체의 붕괴 과정을 경험”하였고, “노예소유자 계급국가”의 첫 단

8) 朝鮮歷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査部, 1950, 「제1장 제1편 원시공산제사회」, 『歷史諸問題』, 1950-3, 77쪽.

9) 朝鮮歷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査部, 1950, 「제3장 고대국가」, 『歷史諸問題』, 1950-4, 89~91쪽.

계에 도달했다고 하였다.<sup>10)</sup> 기원전 3세기 이후의 고조선이 대표적인 사례였다.<sup>11)</sup> 다만 고조선이 “모든 제도를 구비한 왕국”은 아니었다고 했다. 부자상속의 왕위제도가 확립되지 못했고, 고조선의 왕은 앵겔스가 설명한 바실레우스(Basileus)로서 후세의 왕과 다르다고 파악하였다. 그리스의 종족동맹 내지 부족동맹처럼 과도기 단계에 위치하였다고 설명했다.<sup>12)</sup> 『조선인민력사강좌』에서는 씨족사회에서 종족집단-부족동맹 단계를 거쳐서 국가를 형성한다고 했는데,<sup>13)</sup> 이해의 궤를 같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역사』(NARA 소장)에서도 “노예노동이 사회생산부문의 기본노동”으로 된 것은 삼국시기부터였다고 했다.<sup>14)</sup> 삼국시기부터 세습적 왕권이 출현하였고, 관료·형벌·노비의 제도를 구비해 갔다고 하였다.<sup>15)</sup> 그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한 삼국의 民戶는 원칙적으로 노예층이었다고 했다.<sup>16)</sup> 삼국시기에 전형적인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고 본 것이다. 역시 『조선인민력사강좌』의 이해와 다르지 않다.

『조선고대사』(1951)도 「제1장 고대 국가의 발생과 발전」에서 고조선에서 삼국까지를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이해의 방식은 「조선인민력사강좌」 및 『조선역사』(NARA 소장)와 유사하였다.<sup>17)</sup> 기원전 320년 이후 고

10) 『조선역사』(NARA 소장), 33쪽.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제공. 이하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의 자세한 서지사항은 생략한다.

11) 『조선역사』(NARA 소장), 39쪽.

12) 『조선역사』(NARA 소장), 38쪽.

13) 朝鮮歷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查部, 1950, 「제1장 제1편 원시공산제사회」, 『歷史諸問題』 1950-3, 75쪽.

14) 『조선역사』(NARA 소장), 97~103쪽, 125~128쪽.

15) 『조선역사』(NARA 소장), 103~111쪽, 123~125쪽.

16) 『조선역사』(NARA 소장)는 제5편 신라사 서술이 결락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체제 정비의 과정은 동일한 것으로 설명된다.

17)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조선고대사』(1952, 연변교육출판사 번인). ※ 이 책은 中國 延邊大學 鄭京日 교수의 도움을 얻어 입수했다. 감사를 표한다.

조선은 고대 국가의 첫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였는데, 왕은 바실레우스와 같았다고 하였고, 원시 사회의 유제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였다.<sup>18)</sup> 고대 그리스·로마와 동일한 노예제 국가를 형성한 것은 삼국으로, 삼국에서 고대 국가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하였다.<sup>19)</sup>

이와 같은 고대사 체계는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출발하였다.<sup>20)</sup>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처음으로 부여·삼한 등을 부족국가·부족 동맹이란 용어를 사용해 고대 국가 형성 중의 과도기를 설정했고,<sup>21)</sup> 삼국 시기부터 노예제 국가를 형성했다고 이해했다.

『조선인민력사강좌』와 『조선고대사』는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했다. 조선력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은 백남운이었다.<sup>22)</sup> 『조선력사』(NARA 소장)의 경우 최근 지적되었듯 백남운의 『조선력사』(1951)로 추정된다.<sup>23)</sup> 실제 『조선역사』(NARA)의 내용은 『조선사회경제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예컨대 『조선역사』(NARA)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

---

18)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앞의 책, 17~18쪽.

19)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앞의 책, 9~14쪽. 다만 『조선역사』(NARA)와 다른 점도 보인다. 우선 고대 국가의 첫 단계에 진입한 시점이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320년으로 1세기 가량 상향되었다. 또한 『조선역사』(NARA)에서는 고조선의 왕이 고대 그리스의 국가 형성에서 볼 수 있듯이(프레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85, 『가족의 기원』, 아침, 118~122쪽, 184~185쪽), 세습적 왕권으로 이행되기 이전 원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세습적 지도자였다고 하였는데(『조선역사』(NARA 소장), 33쪽),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앞의 책에서는 기원전 320년 이후 추장 선거제도가 없어지고 부권의 세습적 권력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국가 형성의 발전 단계도 한층 높여 본 것이다.

20) 白南雲, 1933,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하일식 옮김, 1994 『백남운전집1 조선사회경제사』, 이론과 실천.

21) 하일식, 1994, 「해제: 『朝鮮社會經濟史』의 원시·노예제사회론」, 『백남운전집1 조선사회경제사』, 이론과 실천, 397~398쪽; 여호규, 1996,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19, 222쪽.

22) 朝鮮歷史編纂委員會, 1949, 「別表(1): 朝鮮歷史編纂委員會構成」, 『歷史諸問題』 1949-5.

23) 이경섭, 2017a,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韓國史學史學報』 36, 117쪽.



용된 『檀君古記』에 주목해 단군신화가 후세에 고구려의 주몽신화를 변형한 것으로 서술했는데,<sup>24)</sup> 이는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백남운의 독창적인 해석이었다.<sup>25)</sup> 따라서 이상의 세 저술은 백남운의 고대사 이해가 반영된 저술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와 같이 보면 이상의 세 저술과 『조선사회경제사』의 차이점도 주의된다.

이상의 세 저술은 고조선이 종족집단-부족동맹 단계에 있었다고 하였지만, 고대 노예제 국가의 첫 단계였다고 한 데 반해, 『조선사회경제사』에서는 단군신화를 비판하고 고조선사를 서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여·삼한 등을 부족국가·부족동맹으로 파악하고 이를 원시의 범주에서 이해하였다. 해방 이후 백남운의 고대사 인식 변화가 고려된다.

1946년 발표한 「조선 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보면,<sup>26)</sup> 부여·삼한의 부족국가·부족동맹을 「아세아적 단계」로 설정해 「원시 씨족 공산적 단계」와 구분하였고, 「아세아적 단계」를 初階級社會라고 해서 계급사회의 범주에서 파악하였다.<sup>27)</sup> 그리고 보면 이상의 세 저술에서는 고조선을 고대 노예제 국가의 첫 단계로 설정하며 고대사 인식이 재차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sup>28)</sup> 그럼에도 여전히 고조선을 고대 노예제 국가를 향한

24) 『조선역사』(NARA), 39~50쪽.

25) 李京燮, 2017b, 「白南雲의 단군신화 인식」, 『東國史學』 63, 293~294쪽. 백남운의 단군신화 비판은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한 민족주의 역사학만 아니라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수법이기도 했다(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19, 「식민지기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237~241쪽).

26)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305~312쪽.

27) 백남운, 1946, 「조선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 『민족문화』 1; 하일식 옮김, 1991, 『백남운전집4 彙編』, 이론과 실천, 136~137쪽.

28) 1957년 토론회에서도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 저술에서 고조선 말해 한사군 서술이 제외된 것이 일시 보류였다고 하고(1957, 「백남운 원사의 토론 요지」, 『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1989, 일송정, 347쪽), 향후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358쪽). 또한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

과도기로 이해했고, 또 전형적인 노예제 국가가 삼국으로 보았다. 큰 틀에서 보면 기왕의 이해가 견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통사(상)』(1956)이다.<sup>29)</sup>

『조선통사(상)』(1956)은 1952년 3월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개편해 설립한 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첫 번째 통사였다. 이 책에서는 고대 노예제 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7세기 신라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 「봉건 관계의 발전」을 설정했다. 장절의 목차에서 고조선에서 삼국시기까지의 사회구성 및 시대구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서문에 나오듯 1~4장의 고대사 분야는 임건상의 저술이었다.<sup>30)</sup>

임건상은 1956년 과학원에서 열린 토론회(10월 31일~11월 2일)에서 삼국시기를 노예제 사회로 파악했지만,<sup>31)</sup> 그 즈음 저술된 『조선통사(상)』(1956)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이다. 「중성적인 설명」이었다고 했다.<sup>32)</sup>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 중·후반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삼국시기의 사회구성 및 시대구분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집필자 간에 이견이 표출되었고,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견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선통사(상)』(1956)에서 삼국이 촌락공동체를 토대로 수립된 동양적 전제 국가였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sup>33)</sup> 1956년

---

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반성하였다(347쪽). 변화의 방향이 엇보인다.

29)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조선통사(상)』, 과학원 역사연구소.

30)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서문」 앞의 책, 1쪽.

31) 임건상, 1957,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1989, 앞의 책, 107쪽.

32)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조선통사(상)』(1956), 서문, 2쪽.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30여 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조선통사(상)』(1957)에 대한 합평회(1957.09.04.~09.06.)에서도 삼국 시기 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는 이해결의 과제였다고 지적되었다. 편집부, 1957, 「학계소식: 『조선통사(상)』에 대한 합평회」, 『역사과학』 1957-6, 91쪽. 다만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앞의 책, 76~79쪽의 「참고」를 보면 임건상은 自說의 입장에서 諸說을 정리해 두었다.

33)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앞의 책, 33쪽, 41쪽, 49~50쪽.

과학원에서 열린 토론회(10월 31일~11월 2일)에서도 임건상의 주장은 같았다.<sup>34)</sup> 삼국의 각종 민은 국왕에 예속된 노예의 처지로, 삼국은 동양적 노예제 사회(총체적 노예제사회)였다고 하였다.<sup>35)</sup> 원시 사회의 공동체적 유제를 중시한 정체성, 이와 직결된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삼국을 전형적인 노예제 국가로 보았던 백남운 및 주요 통사적 저술과 다른 입장이었다.

『개요』에서 삼국시기를 봉건사회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 준다. 『조선통사(상)』(1956)과 함께 두고 보면, 고대 노예제의 존부 문제, 노예제의 아시아적 특수성 문제가 쟁점이었다. 『조선통사(상)』(1956)과 『개요』의 이와 같은 서술은 「조선인민력사강좌」·『조선고대사』·『조선력사』(NARA 소장)까지 주요 통사적 저술에서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던 백남운의 고대사 체계가 도전에 직면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이제 『개요』의 고대사 이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개요』에서 역시 고조선부터 이미 계급사회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까지 공동체적 사회가 존속했고, 국가에서는 이를 이용해 성읍·군현·식읍 등의 형식으로 공납제적 착취를 실시했다고 하였다. 공동체적 생산양식(우클라드)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통사(상)』(1956)과 같이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비의 경우 노예적 처지였다고 했는데, 노예제가 지배적인 사회경제 구성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고 했다. 그보다 농노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사회경제 구성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이처럼 공동체적 생산양식과 노예제적 생산양식 그리고 농노제적 생산양식이 병존하며 서로 투쟁하던 시기를 ‘조기 봉건사회’라고 부른다고 했다.<sup>36)</sup>

34) 임건상, 1957,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1989, 앞의 책, 99~102쪽.

35) 임건상, 1957,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1989, 앞의 책, 107쪽.

조기 봉건사회설은 외부의 영향을 강조했다. 『개요』에서는 한나라를 先進 국가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漢四郡을 통해 철기를 수용했고, 이러한 생산도구의 발전으로 원시 공동체의 요소가 급격히 와해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사군과의 투쟁을 통해 내적 단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강력한 국가의 발생이 촉진되었다고 하였다.<sup>37)</sup> 한나라와 그 군현을 통해 내적 생산력이 발전하였고, 정치 제도의 수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노예제사회를 뛰어넘어 당대의 중원왕조와 같은 봉건 사회를 형성하였다고 설명했다.<sup>38)</sup>

『조선통사(상)』(1956)과 『개요』에 소개되었듯 북한 역사학계에서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은 이미 1953년 평양(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과학자대회에서 논의되었고, 이때 주요 학설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sup>39)</sup> 그리고 1955년 김광진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sup>40)</sup> 『력사과학』에 일련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1956년 과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치열한 학문적 공방이 전개되었다. 노예제사회설, 조기 봉건사회설, 절충설(고구려·백제 노예제사회, 신라 봉건사회)이 경합했다.<sup>41)</sup>

『개요』는 논쟁의 와중에 저술된 것으로, 조기 봉건사회설에 입각한 북한 역사학계의 첫 번째 통사였다. 물론 『개요』가 조기 봉건사회설에 입각했다고 해서 이 설이 아직 북한 역사학계의 통설은 아니었다. 가령 고

36)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60~61쪽.

37)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56~57쪽.

38)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80쪽.

39) 과학원 력사연구소, 1956, 앞의 책, 76~79쪽; 백남운, 1957, 「백남운 원사의 토론 요지」; 1989, 앞의 책, 351쪽;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79쪽.

40) 김광진, 1955a·b,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 과정(상·하)-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력사과학』 1955-8·9.

41)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盧泰敦, 1991, 「北韓學界의 三國時代史 研究動向」, 歷史學會 編, 『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閣, 72~81쪽; 송호정, 1989, 「북한에 서의 고증세사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 122~146쪽; 이경섭, 2017a, 앞의 논문, 119~125쪽 참조.

『조선사 개요』(1957)의 初期 봉건사회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육성·교육문화성에서 비준한 『조선력사-제1분책-』(김석형, 1957, 학우  
서방)과 『조선력사 1-대학용-』(임건상, 1958, 교육도서출판사)을 보면, 삼  
국시기까지를 고대국가로, 통일신라부터 중세국가로 설정하였다. 1950년  
대 중·후반까지 통설은 여전히 노예제사회설이었다고 파악된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개요』에서는 삼국시기 사회구성에 대한 통설이  
정립되지 않았고,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 봉건사회설을 펼  
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주의 형식으로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諸說을 소개한 것도 통설 내지 이설을 다분히 의식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諸說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해 주목된다.

노예제 사회설은 사회 발전의 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  
만, 구체적인 실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봉건제 사회설은 반대로 구체적  
인 실증은 인정되지만, 역시 고전적 노예제 사회를 전제로 하였고, 중국  
의 영향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비판했다. 절충설은 양자의 이점과 결  
함이 모두 보인다고 했다. 절충설을 제외하고 보면, 『개요』의 집필자는  
노예제 사회설과 봉건제 사회설의 대립이 이론과 실증의 문제에서 차이  
를 보였다고 인식한 셈이다. 그러면 『개요』는 어떠한 학문적 배경 속에서  
초기 봉건사회설을 채택했을까. 먼저 집필자의 인적 구성이 궁금하다.

## II. 『개요』와 조선사강좌의 인적 구성

『개요』는 1957년 12월 25일에 발행되었는데, 1956년 9월 30일 발행된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를 보면 이미 제1권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조선 역사를 관통하는 『조선사 개요』는 우리 대학 역사 학자들의 집체  
적 연구로써 그 제1권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제2권의 집필이 진행 중에 있

다. 여기서는 종래 조선 력사 학계에서 론쟁되고 있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의 노력이 적지 않게 시도되고 있다. 레컨대 3국 시대의 우리나라를 봉건 사회로 규정한 문제라든지 봉건 조선의 토지 소유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또는 중앙 집권제와 관련된 조선 봉건 제도의 특성 등 등에 관한 문제들이 그러하다. (김일성종합대학, 1956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145쪽)

1876년 이후의 근세사·근대사는 추후 속편에서 서술할 계획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제1권은 지금의 『개요』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개요』의 서문은 1957년 6월에 작성했다고 하고, 책이 인쇄에 회부된 것은 1957년 8월 31일이었다고 나온다. 이로 미루어 보아 1956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한 제1권은 『개요』의 초고가 아니었을까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10주년에 맞추어 먼저 제출한 것으로, 『개요』의 기획 의도를 짐작케 한다. 창립 10주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저술이었던 것이다.

『개요』는 김일성종합대학 소속 역사학자의 집체적 연구였다고 했다. 집체적으로 집필요강을 작성·토의하고 이에 의거해서 통사를 서술했다고 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은 집체적 토의와 저술은 문학과 자연과학 분야 등 타학문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조선문학사년대표』와 『자연과학통편』이 그와 같은 저술이었다고 했다.<sup>43)</sup> 이러한 저술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재였다. 『개요』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이 각 학문 분야의 교재를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시험 모델이었던 셈이다.

『개요』를 집필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자란 구체적으로 「조선사강좌」의 구성원이었다.<sup>44)</sup> 김일성종합대학은 창립 직후부터 소련의 까페드

42)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 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25쪽.

43) 김일성종합대학, 1956, 앞의 책, 140쪽.

44) 역사학부에는 「맑스-레닌주의 기본 강좌」,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주 건설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강좌」, 「조선사강좌」, 「조선 물질 문화사 강좌」, 「세계사 강좌」,

『조선사 개요』(1957)의 初期 봉건사회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라, 즉 강좌제를 운영했는데, 학부-학과의 각 강좌는 전공에 따른 연구와 교육의 기초 단위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강좌제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연구집단을 양성하고자 했다.<sup>45)</sup> 『개요』를 집필할 조선사강좌는 1947년 10월 역사문학부 조선사학강좌(강좌장[카페드라학장]: 도유호, 1947년 9월 임명)<sup>46)</sup>에서 고고학강좌(강좌장: 도유호)와 조선사학강좌(강좌장: 박시형)으로 분립된 것이었다.<sup>47)</sup>

이처럼 『개요』는 김일성종합대학 창설 10주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교수진 각자의 연구는 물론이고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저술되었다. 그의 公論이었던 셈이다. 『개요』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이 분담·집필했다고 한다.

체희국 1·2·3·4·5·6

김석형 7·16

리용중 8·9·10·11·12·13·14·15

김사익 17·18·19·21·22(1·4·5절)·23·24·25·26(4절)·27·30

박시형 20·26(123절)

양형섭 22(23절)

안용태 28·29

---

「중국 및 동방 제국사 강좌」,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 강좌」, 「철학사 강좌」, 「교육학 강좌」, 등 모두 9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다(김일성종합대학, 1956, 앞의 책, 부록).

45) 김근배, 2000, 앞의 논문, 202쪽.

46) 「김일성대학 교원 임명의 건, 1947.09.15.」, 「교원 임명 승인 확정 의 건, 교육국장 발신, 김일성대학 총장 수신, 1947.09.19.」, 『김일성대학 발령건, 북조인위 교육국(1947년도)』(NARA,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47) 「카페드라 新設 및 學長任命內申의 件(朴日 金日成大學副總長 발신, 教育局長 수신, 1947.10.03.」, 「김일성대학 카페드라 신설 및 강좌장 임명의 건(한설야 교육국장 발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수신, 1947.10.10.)」, 『김일성대학 발령건, 북조인위 교육국(1947년도)』(NARA,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이상에서 1장이 원시사에, 2장~8장이 고대사 분야에 해당한다. 1~8장은 채희국·김석형·이용중이 분담해 집필했다. 『개요』에서는 “삼국시기의 사회 구성의 서술에 있어서 직접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것을 조기 봉건 사회로서 서술”했다고 하였다.<sup>48)</sup> 논쟁에 휩싸여 있던 조기 봉건사회설은 채희국의 서술이었다.

채희국은 1996년 3월에 사망했다. 이때 「중앙통신」은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교 강좌장인 金日成賞 계관인[桂冠人, 김일성賞 수상자 칭호]·후보원사[최고학자 칭호]·교수·박사 채희국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고, 한국 언론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1917년 충북에서 출생해 京城大學 사학부를 나와 서울대학교 文理大 교수로 재직하다가 6.25전쟁 때 월북,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 考古學 강좌장(1980.09)을 거쳐 역사학부 강좌장(1984.07)을 맡아왔다.<sup>49)</sup>

1932년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입학생 명단에 채희국이 보이는데,<sup>50)</sup> 졸업생 학적부에서 졸업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sup>51)</sup> 경성제국대학 졸업생 명단이나,<sup>52)</sup> 서울대학교 졸업생 명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sup>53)</sup> 아직까지 이 이외에 채희국의 학력과 이력은 상세히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48)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26쪽.

49) 『연합뉴스』, 1996.03.18. <https://news.v.daum.net/v/19960318142500004?f=0> (2019.11.18. 검색)

50) 「今春의 合格者-專門과 中等校」, 『東亞日報』, 1932년 3월 30일, 7면

51) 「卒業生 學籍簿(淸州公立高等普通學校 第7~17回, 1935~1945)」(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26264~ CJA0026274)를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52) 장신, 2011,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의 磁場」, 『역사문제연구』 26, 71~73쪽; 이충우·최종고, 2013,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397~464쪽.

53) 서울大學校 二十年史編纂委員會, 1966, 「부록 학사명부」, 『서울大學校 二十年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1~13쪽.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김성철의 일기가 참고된다.

1950년 7월 18일. 김삼불 군이란 국문과의 수재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학도이다. 그가 좌익에 공명하는 것쯤은 평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맹랑한 친구인 줄은 몰랐다. 이즘은 학교에는 김삼불 군, 임건상 군 같은 졸업생들이 나와서 어느 사이엔지 모르게 차츰 차지를 잡고 있게 되었다. 敎協에서 빼라나 써주고 붙어 다니던 얼치기 친구들이 모두 문리과대학 교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김성철 지음, 정병준 해제, 2009, 『역사 앞에서 (개정판)』, 창비, 126쪽)

1950년 8월 8일. 돈암동 새형님께 나갔던 길에 학교에 들렀더니 직업동맹 결성식이 있다는데 선생들은 통히 나오신 분이 없다. (중략) 뿔뿔이 임원은 채회국, 임건상, 정찬영의 제군들. 모두 敎協 혹은 科盟에서 일하다 넘어온 분들로서, 종래의 교원은 한분도 끼지 않았다. 며칠 나오지 않는 동안에 문리대가 아주 탄 학교가 되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김성철 지음, 정병준 해제, 2009, 앞의 책, 171~172쪽)

1950년 9월 4일. 학교 小使가 7월분 봉급조서에 도장을 받으러 왔다. (중략) 우리들 종래로부터 있던 교원들에게는 이렇듯 전대미문의 각박한 방법을 쓰는 대신 정찬영, 채회국 등 새로이 임명된 교원 16명에게는 무조건하고 일률로 2만원씩의 지급이다. 이들이 이처럼 대량으로 채용된 것도 이제 비로소 알았지만, 그들이 학교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7월 말 아니면 8월 들어서이다. (김성철 지음, 정병준 해제, 2009, 앞의 책, 210~211쪽)

김성철에 따르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1950년 7~8월 무렵 채회국, 임건상, 정찬영 등 16명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새로운 교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그러나 종래의 서울대학교 교원이 아니었고, 졸업생으로 조선교육자협회[敎協] 내지 조선과학자동맹[科盟]에서 일하다가 넘어온 인사였다고 했다. 이 중에서 임건상은 서울대학교 사학과 제2회 졸업생(1948.8)이었고,<sup>54)</sup> 정찬영은

제3회 졸업생(1949.7)이었다.<sup>55)</sup> 채희국이 그들과 함께 거명되었다고 보면, 그 역시 경성제국대학 내지 서울대학교 사학과에서 수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1957년 토론회에서 조기 봉건사회설을 지지한 이들을 보면, 채희국 이외에도 김석형·박시형·정찬영 등 경성제국대학 내지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이 다수였다. 김석형과 박시형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12회 졸업생(1940.03)이었다.<sup>56)</sup> 그들 중에서 채희국·김석형·박시형은 『개요』의 집필자이기도 했다. 『개요』의 집필자 중에서 김사역도 서울대학교 사학과 학생이었다. 김사역도 졸업생 명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임건상과 함께 이인영 교수의 지도를 받아 1946년부터 『조선사개설』(1949)을 저술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sup>57)</sup>

잘 알려진 것처럼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중에는 일제 시기의 제국대학, 특히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학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sup>58)</sup> 조선사강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조기 봉건사회설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내에서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이 모두 조기 봉건사회설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임건상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임건상은 이무렵 중앙당학교 조선사강좌 강좌장으로,<sup>59)</sup>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54) 서울大學校 二十年史編纂委員會, 1966, 앞의 책, 「부록 학사명부」, 3쪽.

55) 서울大學校 二十年史編纂委員會, 1966, 앞의 책, 「부록 학사명부」, 6쪽.

56) 장신, 2011, 앞의 논문, 72쪽; 이충우·최종고, 2013, 앞의 책, 431쪽, 433쪽.

57) 趙東杰, 1998,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343쪽.

58) 김기석, 2001, 앞의 책, 71~72쪽; 정종현, 2019,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82~286쪽. 김기석, 2001, 앞의 책, 72쪽에서는 김석형과 박시형이 학연을 중심으로 동지적 유대를 강화한 대표적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리규춘, 2001, 『김석형전기-신념과 인간』, 금성청년종합출판사, 31~36쪽에도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59) 편집부, 1957, 「학계소식: 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 『력사과학』

『조선사 개요』(1957)의 初期 봉건사회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의 교수진과 소속이 달랐다.

참고로 1956년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학자의 소속과 직위는 다음과 같았는데,<sup>60)</sup> 이때 과학원 력사연구소의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 소속 연구사는 박시형·김석형·전석담·박경수·임건상·엄창종이었다(검직이 고려된다).<sup>61)</sup>

【표 2】 1956년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학자의 소속 및 직위

칭호	성명	소속/직위
후보 원사	김광진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실장
후보 원사	도유호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소장
-	임건상	중앙당학교/조선사강좌장 겸 과학원 력사연구소 겸임연구사
-	전석담	인민경제대학 강좌장 겸 과학원 력사연구소 겸임연구사
-	한길언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연구사
-	정찬영	인민경제대학 조선사 교원
-	채회국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원
-	이능식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원
원사	백남운	과학원 원장
-	김세익	인민경제대학 조선사 교원
-	박시형	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	이청원	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	정세호	과학원 력사연구소 상급편찬원
-	엄창종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장

이처럼 『개요』를 저술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구성원의 다수

1957-1, 87쪽. 방북 학자(조명훈)의 증언에 의하면 적어도 1988년까지 조선노동당 중앙당학교의 후신인 김일성고급당학교 역사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종기, 2012, 「부곡 연구의 개척자, 임건상 연구」,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푸른역사, 190~191쪽).

60) 편집부, 1957, 「학계소식: 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 『역사과학』 1957-1, 87쪽.

61) 편집부, 1957, 「학계소식: 과학원 력사연구소 제8차 과학평의회에서 1956년 년간 사업 총회」, 『역사과학』 1957-2, 98~99쪽.

가 조기 봉건사회설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김광진도 1928~1929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부수·조수를 역임하며 그 출신의 여러 학자와 밀접히 지냈다.<sup>62)</sup> 그러하였기에 조선사강좌란 단일한 연구집단 내에서 보다 긴밀히 학문적 영향을 주고받았고, 『개요』를 저술하는 데서도 조기 봉건사회설을 전격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고 풀이된다. 비슷한 시기에 과학원에서 여러 연구집단의 역사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조선통사(상)』(1956)나, 김석형이 집필했지만 교육성에서 비준한 『조선력사-제1분책-』(1957, 학우서방)과 달리 독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sup>63)</sup>

조기 봉건제사회설은 김광진이 제기하였다고 했다. 김광진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 전인 1946년 8월 1일에 교원으로 임명되었고,<sup>64)</sup> 창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65)</sup> 여러 증언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특히 교원의 초빙에 노력했는데, 조선사강좌의 창립 당시 임시 강좌장을 맡기도 했다.<sup>66)</sup> 1946년 8월 20일에 교원으로 임명된 김석형·박시형의 초빙에도 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7)</sup>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김광진은 연구와 교육의 양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68)</sup> 김일성종합대학 내에서 그가

62) 홍종욱, 2016, 앞의 논문, 292~295쪽.

63) 김석형, 1957, 『조선력사-제1분책-』, 학우서방, 60~61쪽에서는 7세기 후반~8세기 노비와 良人의 사회적 처지가 노예보다 향상되며 봉건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64) 김기석, 2001, 앞의 책, 70쪽; 홍종욱, 2016, 앞의 논문, 304쪽 및 주90.

65) 홍종욱, 2016, 앞의 논문, 304쪽.

66) 「敎員任命에 關한 內申(朴日 金日成大學總長代理 敎育副總長 발신, 敎育局長 수신, 1947.02.17.) 및 별지2 「까페드라學長任命內申書」, 『김일성대학 발령건, 복조인위 교육국(1947년도)』(NARA,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67) 李光麟, 1988, 「北韓의 歷史學」, 『東亞研究』 16, 西江大 東亞研究所, 49쪽 및 주21, 56쪽; 송호정, 1997, 「북한 역사학계의 거두 김석형과 한국사 연구」, 『역사비평』 38; 김기석, 2001, 앞의 책, 70~71쪽; 김일수, 2008, 「이병도와 김석형-실증사학과 주체사학의 분립」, 『역사비평』 82, 110쪽.

68) 홍종욱, 2016, 앞의 논문, 304~305쪽.

차지한 위상은 상당하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사강좌에 미친 영향력이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던 박극채(1946.09 부임)와 전석담(부임 연월 미상)도 주목된다. 박극채는 1931년 京都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sup>69)</sup> 1934년 대학원을 마쳤다[畢業]. 보성전문학교 상과·경성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조선과학자동맹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sup>70)</sup> 전석담은 1940년에 東北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경성상업전문학교·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sup>71)</sup> 이들은 김광진과 더불어 해방 전후 조선의 대표적인 주류 마르크스주의자였다. 백남운의 고대 노예제 사회설을 비판했고, 일본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와 아시아적 특수성론을 공유하고 있었다.<sup>72)</sup>

해방 직후 전석담의 저술(1948a, 『朝鮮史教程』, 乙酉文化社; 1948b, 『朝鮮社會經濟史』, 博文出版社)이 주목된다. 그는 봉건제 성립에 두 가지 경로를 상정했다. 하나는 「원시공산사회-노예제사회-봉건사회」의 전형적 발전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원시공산사회-봉건사회」의 발전 경로라는 것이다.<sup>73)</sup> 이 중에서 한국사는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 그리고 삼국을 봉건국가[미숙한 농노사회]로 파악했다. 초기 봉건사회설의 효시였다.<sup>74)</sup>

69) 정중현, 2019, 「부록2: 교토제국대학 조선인 재학생·졸업생 명단」 앞의 책, 375쪽.

70) 『金大(김일성대학)교원 이력서, 문학부』(NARA,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71) 임영태, 1989,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8, 333~335쪽.

72) 방기중, 1992, 앞의 책, 165~170쪽; 오웬 밀러, 2011, 「해방공간과 전석담의 역사 인식」,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228~229쪽.

73) 全錫淡, 1948b, 『朝鮮社會經濟史』, 博文出版社, 27쪽.

74) 盧泰敦, 1991, 앞의 논문, 75쪽; 李炳熙, 1997 「中世封建社會論」,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304~305쪽; 이환병, 2002, 「해방직후 맑스주의 역사학자들의 한국사인식」, 『韓國史學史學報』 5, 56~57쪽.

이리하여 노예 노동은 당시 한 개의 중요한 사회적 노동이 되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論者가 애써 주장하고자 하는 ‘지배적’ 생산 양식을 이루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조세의 형태로서 地代를 납부하는 일반 농민 계급의 노동이 사회적 생산의 일차적인 지주가 되어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삼국 시대를 노예 사회라기보다는 차라리 미숙하나마 농노 사회라고 본다. (全錫淡, 1948a, 『朝鮮史教程』, 28쪽)

서기전 108년에 한무제가 군현을 설치하여 관료조직, 조세체계, 사유제도 등 발달한 계급지배의 문화를 이 땅에 이식한 이래 직접으로 혹은 간접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역사적 발전 과정을 현저히 촉진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단 종족에 一步 앞서서 국가를 이루었고 이어서 마한의 古土에는 백제, 진한의 古土에는 신라가 일어나서 삼국정립시대를 現出하였다. (全錫淡, 1948b, 『朝鮮社會經濟史』, 53쪽)

전석담은 삼국을 노예제 사회로 보는 일부 논자, 즉 백남운의 견해를 비판했다. 그가 삼국 사회의 노예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예보다 일반 농민의 생산이 주된 방식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원시 공산사회에서 이어져 온 토지 공유제가 국가적 토지 공유제를 원칙으로 정비되며 봉건사회를 형성했다고 하였다.<sup>75)</sup>

이러한 봉건사회 형성에서 강조된 것이 한군현의 영향이었다.<sup>76)</sup> 한사군의 설치를 계기로 계급지배의 문화가 이식되었고, 역사적 발전과정이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전석담의 초기 봉기사회설은 김광진의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sup>77)</sup> 초기 봉건사회설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김광진에게 영향

75) 全錫淡, 1948b, 앞의 책, 52~54쪽.

76) 이환병, 2002, 앞의 논문, 57쪽.

77) 김광진은 노예제란 생산양식이 고구려의 주된 사회경제 구성은 아니었다고 하며 삼국 노예제사회설을 비판했고, 공동체적 제도의 강한 잔존이 동양적 전제정치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반두링론』의 언설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끈 농업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이 漢의 철기문화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다(1937, 「高句麗社會の生産様式—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 『普專學會論集』 3, 普

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김광진은 1937년 발표한 논문에서 고구려 사회의 원시 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했지만,<sup>78)</sup> 1955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고조선을 계급사회로 보고, 삼국시기에 초기 봉건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sup>79)</sup>

이처럼 초기 봉건사회설은 김광진과 전석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제기되었는데, 이와 같은 구상은 아시아적 특수성론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넓게 보아 1930년대부터 해방 전후 조선의 주류 마르크스주의자 그룹에서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제국대학 내지 일본 유학 출신의 저명학자였다. 제국 일본에서 학문적 토양을 다진 조선 학계의 중진이었다. 그들이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의 신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와 연줄이 이어져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의 주축을 구성했다.<sup>80)</sup> 그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초기 봉건사회설이 제기되었으며, 조선사강좌의 公論으로 『개요』에 채택된 것이다.

그러면 『개요』와 이를 집필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사강좌는 해방 이후~1950년대 중·후반 북한 역사학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을까. 『개요』를 집필한 조선사강좌의 학문적 지향이 궁금하다.

---

成專門學校普專學會; 김지현 譯, 2015, 「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국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78) 金洸鎭, 김지현 譯, 2015, 앞의 논문.

79) 김광진, 1955a·b, 앞의 논문.

80) 『金大(김일성대학)교원 이력서, 문학부』(NARA,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의 調査書を 보면, 박극채·박시형·김석형 등의 사상경향은 ‘맑스(맑스)주의자’로 적혀 있다. 도유호 등이 ‘진보적’으로 적혀 있는 점과 비교된다.

### Ⅲ. 조선사강좌의 학문적 지향과 변화

해방 이후 북한 역사학계의 당면 과제는 식민주의 역사학 극복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입각한 한국사 체계의 수립이었다.<sup>81)</sup> 이 중에서 전자에 초점을 맞춘 일각의 역사학자들은 신채호를 비롯한 일제시기 민족주의 역사학의 성과를 일부 수용했다. 김두봉·이여성·홍기문·정세호·정현 등이 대표적이다.<sup>82)</sup>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학자 그룹이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고조선사였다. 특히 고조선의 중심지를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조선 지역에 설치된 한사군, 특히 중심지에 설치되었다고 여겨지는 낙랑군의 위치 비정이 중시되었다. 20세기 전반의 고고학 조사를 통해 지금의 평양 일대로 보는 견해가 통설로 굳어져 있었지만, 이를 부정하고 신채호를 비롯한 일제시기의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문헌사료 연구를 수용해 지금의 중국 요령성 중·서부 지역으로 보고자 했다. 한반도 중심의 한국사 체계를 부정함으로써 식민주의 역사학의 타율성론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일각의 시도는 『조선고대사』(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51)에 반영되기 시작해 교육성·교육문화성에서 비준한 『조선력사-제1분책』(1957)과 『조선력사 1-대학용-』(1958)에서 전격적으로 채택되었다.<sup>83)</sup>

이와 비교해 『조선통사(상)』(1956)에서는 한사군의 위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요동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가 미진한 형편이지만, 그

81) 金日成, 1949,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組織 및 基本課業에 關하여」, 『歷史諸問題』 1949-5.

82) 『歷史諸問題』와 『역사과학』에 수록된 일련의 연구가 참고된다. 『歷史諸問題』 수록된 고조선사 연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정빈, 2015,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설립과 북한 고조선 연구의 개시(1947~1950)」, 『先史와 古代』 45 참조.

83) 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앞의 책, 5~9쪽에서 疑案이라고 밝힌 데 반해, 김석형, 1957, 앞의 책, 18쪽과 임건상, 1958, 앞의 책, 62~64쪽에서는 통설로서 기술하였다.



『조선사 개요』(1957)의 初期 봉건사회설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영향이 한반도 서북부만 아니라 경상도 일대까지 미친다고 했다. 고고학  
적 성과를 중시해 낙랑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소재하였음을 시사한 것이  
다.<sup>84)</sup>

『개요』도 그와 유사한 입장이었다. 문헌자료를 중시하면 한사군이 한  
반도에 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한편으로, 고고자료를 중시하면  
한반도 소재 한사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85)</sup> 그러면서 낙랑  
군이 요하 하류에서 대동강 하류 지역에 다시 설치되었다고 했다. 절충적  
인 이해였다. 『조선통사(상)』(1956)과 『개요』 모두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  
학자 그룹의 연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수  
용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개요』의 다음과 같은 서술이 주의된다.

상기한 신화와 전설[필자: 단군신화, 기자전설]에서 그 중심지가 모두  
평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양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유구한 역사를 말하여  
주는 좋은 예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개요』, 53쪽)

단군신화와 기자전설을 비판했지만 그 속에서 중심지가 평양으로 나  
온다는 사실에 주의했다. 비록 『개요』는 민족주의 성향을 띤 역사학자 그  
룹의 연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민족에 대한 이해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학자 그룹에서 고조선사 연구에 주력한 까닭은  
그로부터 민족의 기원과 형성을 찾아 一系의 한국사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신채호에서 시작된 민족주의 역사학의 지향이었다.<sup>86)</sup>  
예컨대 정세호는 고조선과 三韓의 기원 및 종족이 같다는 신채호의 前後

84)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조선통사(상)』(1956), 26쪽.

85)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개요』, 55쪽.

86) 앙드레 슈미트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  
스트, 419~436쪽.

三韓說을 수용했다[前三韓在遼東說].<sup>87)</sup> 그러나 1950년대까지 이와 같은 해석이 북한 역사학계에 널리 수용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김광진은 신채호의 고조선~삼한 이해를 두고, 부르주아의 국가 학설에 입각했다고 하였고, 국가 기원에 대해 신화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sup>88)</sup> 『조선통사(상)』(1956)과 『개요』 모두 원시 사회의 제종족이 동북아시아 각지에 산거한 가운데 여러 고대 국가가 순차적으로 형성되었고,<sup>89)</sup> 신라의 삼국통일을 통해 민족의 원형[준민족·나로드노스찌]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sup>90)</sup> 『조선력사-제1분책-』(1957)과 『조선력사 1-대학용-』(1958)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91)</sup>

잘 알려진 것처럼 1960년대 전반까지 민족주의 성향은 관념론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판받기 쉬웠다. 1956년 과학원 원장이 백남운이었고, 력사연구소의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에 박시형·김석형·전석담·임건상 등이 포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역사학계의 주축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그룹이었다. 『조선통사(상)』(1956)·『개요』·『조선력사-제1분책-』(1957)·『조선력사 1-대학용-』(1958)의 고조선·민족 서술은 임건상·채희국·김석형이 집필했다고 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 주요 통사의 고조선·민족 서술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그룹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그룹의 회의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입각한 사회구성의 해명이었다. 그러면 『개요』에서 노예제사회설이 아니라 조기 봉건사회설을

87) 조인성, 2015, 「신채호 前後三韓說의 의의」, 『韓國史學史學報』 31 참조.

88) 김광진, 1955a, 앞의 논문, 14~15쪽.

89) 과학원 력사연구소, 1956, 앞의 책, 12~16쪽;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41~46쪽.

90) 과학원 력사연구소, 1956, 앞의 책, 98~102쪽;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앞의 책, 174~175쪽.

91) 김석형, 1957, 16~17쪽, 60쪽; 임건상, 1958, 『조선력사 1-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47~48쪽, 315쪽.

채택한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일단 연구방법의 차이가 생각된다. 1956년 토론회에서 조기 봉건사회설을 지지한 김광진·정찬영 등이 『삼국지』 동이전에 입각해 『삼국사기』의 사료를 비판했다면, 노예제사회설을 지지한 백남운·임건상 등은 대체로 『삼국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sup>92)</sup> 諸說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개요』의 평가가 상기된다. 조기 봉건사회설의 입장에서 노예제사회설은 사료비판과 이에 입각한 실증이 부족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역사학의 실증에 대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의 태도가 고려된다.

다음으로 연구에 내재된 이념이 생각된다. 1956년 토론회에서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할 때 이미 모리타니 카즈미(森谷克己)의 조기 봉건사회설을 검토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sup>93)</sup> 조기 봉건사회설이 그의 영향이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 전석담은 모리타니 카즈미의 연구를 수용하였음을 밝혔다. 모리타니 카즈미는 1927~194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교수로 재직했다. 그의 부수·조수였던 김광진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조기 봉건사회설이 모리타니 카즈미만의 영향은 아니었다.

모리타니 카즈미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한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중국과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중국고대사의 사회구성과 시대구분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sup>94)</sup> 고대 노예제 사회의 존부를 둘러싸고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충돌했다. 강좌파는 노예제를 부정하며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했는데, 아

92) 盧泰敦, 1991, 앞의 논문, 72~79쪽 참조.

93) 백남운, 1957, 「백남운 원사의 토론 요지」; 1989, 앞의 책, 347쪽.

94) 関斗基 編, 1984, 『中國史時代區分論』, 창작과비평사; 李昇輝, 1988, 「1930年代 日本에서의 아시아의 生産樣式論爭」, 『서울大 東洋史學科 論集』 12 참조.

시아적 특수성은 반봉건·반식민지의 현실에 착안한 것으로, 그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이와 다른 입장이 노동파였다. 그들은 노예제를 긍정하며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했다며, 왜곡된 형태나마 현실이 자본주의 단계였다고 파악했다. 이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추구했다. 당대의 현실인식과 전략이론의 차이가 내재된 논쟁이었다.

이와 같은 논쟁은 1930년대 조선의 한국사 연구에도 이어졌다. 백남운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해 삼국이 전형적인 노예제사회였다고 본 반면, 이청원·전석담·김광진 등 주류 마르크스주의자 그룹은 그의 반대 입장에 서서 한국사 속의 노예제사회를 부정하고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했다.<sup>95)</sup> 해방 이후~1950년대 북한 역사학계의 사회구성 및 시대구분 논쟁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일찍이 백남운은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경유했고, 자본주의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에 의해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이식 자본주의사회론이었다.<sup>96)</sup> 진술하였듯 해방 이후 백남운은 한국고대사 이해를 일부 수정하였다. 아시아적 특수성을 수용해 고대 노예제사회의 전단계를 설정했다. 일제시기의 사회구성도 ‘봉건성 외래 자본주의사회’로 인식하며, 반봉건의 과제를 구체화하였다.<sup>97)</sup> 이를 통해 그는 사회주의 이행의 과도적 형태로 조선 나름의 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제시하였다. 소비에트 체제와 구분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구상한 것이다.<sup>98)</sup>

이와 비교해 주류 마르크스주의자 그룹은 여전히 반봉건이 현실의 시

---

95) 관련 연구와 이론적 배경은 조형열, 2016, 「1930년대 조선 ‘역사과학’ 계열의 보편특수성 인식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수용 양상」, 『전북사학』 49, 213~222쪽 참조.

96) 방기중, 1992, 앞의 책, 202~207쪽.

97) 방기중, 1992, 앞의 책, 308~312쪽.

98) 방기중, 1992, 앞의 책, 313~316쪽.

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해방 직후 전석담은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의 폐기와 지주제의 청산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국민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취했다고 해서 곧장 이를 실시할 수 없고, 부르주아혁명이 당면 과제라고 역설했다.<sup>99)</sup> 다만 전술한 것처럼 해방 이후 서구와 다른 형태나마 봉건제를 인정했고, 미숙하나마 그의 형성이 삼국시기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입장의 수정이었다.<sup>100)</sup>

여기서 봉건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중원왕조란 외부의 영향으로 본 점이 주목된다. 외부의 영향이 갖는 의미가 궁금하다. 먼저 전석담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레에닌은 “선진 諸國民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노예사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조선의 사회적 발전이 그 자체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의하여 노예사회를 거치지 않고 발전하였다고 보거니와, 선진 漢民族의 발전한 봉건적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발전과정이 촉진되고 또한 더욱 뚜렷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全錫淡, 1948b, 『朝鮮社會經濟史』, 31쪽)

그에게 외부의 선진 문화는 역사 발전에서 비약을 가능하도록 한 동인이었다.<sup>101)</sup> 김광진도 같은 생각이었다.

맑스-레닌주의 역사학의 발전은 노예 소유자적 사회를 경과하지 않고도 원시사회로부터 직접 봉건사회로 넘어간 특수한 발전을 한 나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를 경과하지 않고, 또 발전시키지 않고도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레닌은 다음과

99) 全錫淡, 1948a, 『朝鮮史教程』, 乙酉文化社, 4쪽.

100) 홍중욱, 2016, 앞의 논문, 307~310쪽 참조.

101) 오웬 밀러, 2001, 앞의 논문, 241~242쪽 참조. 이 글에서는 미발전의 역사와 현실이 혁명의 긴급함을 상기시켰다고 분석했다.

같이 말하고 있다. “낙후한 나라들은 선진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원조로써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에트 제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일정한 발전단계를 밟아서 공산주의에 넘어갈 수 있다. (김광진, 1957 「조선원시사회 붕괴의 특수성과 봉건적 우클라드의 발생과정」; 1989, 앞의 책, 16쪽)

선진국가의 원조를 받아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비약해 소비에트 제도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봉건의 현실에서 소련의 소비에트 제도 수용이란 비약이 초기 봉건사회설의 지향점이었다. 초기 봉건사회설을 채택한 조선사강좌의 지향도 이와 같았다고 생각된다. 삼국이 漢이란 중원왕조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원시사회에서 초기 봉건사회로 도약하였듯, 한국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단기간의 비약 내지 도약을 전망했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김일성종합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도 주의가 요청된다.

종합 대학의 교수 교양 사업과 과학 연구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내부의 역량과 노력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적 원조와 지지 특히 선진적 소련으로부터의 사심 없는 원조에 의하여서 이었다. 위대한 소련은 김일성 종합 대학이 창설되는 초창기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되는 진실한 방조를 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 1956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58~59쪽)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소련의 학자가 주요 강좌의 고문으로 초빙되었고, 그로부터 각종 도서와 교과서가 보급되었다.<sup>102)</sup> 특히 창립 초기 소련의 원조는 더욱 절실하였는데, 강좌제를 비롯해 각종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방식도 소련의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수립되었다.<sup>103)</sup> 소련의 학문

102) 김일성종합대학, 1956, 앞의 책, 59~63쪽.

연구와 성취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추구해야 할 표준이었다. 소련을 통한 비약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전반의 지향이었다. 역사학계 전반의 지향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1955년 임건상은 『조선고대사』(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51)에 대한 서평에서 혹평을 가했는데, 엄중히 비판한 대목의 하나가 세계사적 보편성이 갖는 방법론적 오류의 문제였다.<sup>104</sup> 그는 비약의 가능성을 중시하였다. 『조선통사(상)』(1956)에서 임건상은 삼국이 동양적 전제 국가였다고 보아,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했다.<sup>105</sup> 1956년 과학원에서 열린 토론회(10월 31일~11월 2일)에서도 마찬가지로,<sup>106</sup> 비단 그만 아니라 노예제사회설을 주장한 역사학자 다수는 일제시기 백남운의 연구와 달리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비약의 가능성을 전망한 것이다.

이때 백남운도 임건상의 발표를 두고, “조선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특수적인 노예사회로 규정한 것은 창발성이 좋은 입론”이라고 평가하였다.<sup>107</sup> 이와 같이 보건대 1950년대 중·후반 노예제사회설과 초기 봉건사회설의 논쟁은 치열했지만, 양자의 간극은 이전보다 좁혀진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1959년 11~12월 과학원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논쟁은 종식의 기미를 보였다.<sup>108</sup> 그리고 1960년 마침내 역사학계의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표명되었다.<sup>109</sup> 삼국에 선행한 고조선을 고

103) 김일성종합대학, 1956, 앞의 책, 29~30쪽 및 정근식·김윤애·임수진, 2017, 114~122쪽; 김선호, 2020, 앞의 논문, 365~366쪽 참조.

104) 림건상, 1955 「서평: 『조선고대사』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5-1, 89~90쪽

105)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앞의 책, 33쪽, 41쪽, 49~50쪽.

106) 임건상, 1957,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1989, 앞의 책, 99~102쪽.

107) 백남운, 1957, 「백남운 원사의 토론 요지」; 1989, 앞의 책, 350쪽.

108) 편집부, 1960, 「학계소식: 우리 나라에 존재한 노예 사회의 시기 문제에 대한 과학 토론회」, 『력사과학』 1960-1, 120쪽.

대 동방형 노예소유자사회으로 규정하는 데 일치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1962년에 발간된 『조선통사(상)』이 논쟁의 종식과 더불어 제시된 통설을 잘 보여준다.<sup>110)</sup> 새로운 통설은 고대 노예제사회를 설정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111)</sup> 그런데 한편으로 고대 노예제사회를 동방형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아시아적 특수성은 한층 부각되었다. 아시아적 특수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하기에 삼국시기도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1960년대 전반 수립된 북한 역사학계의 통설은 기본적으로 조기 봉건사회설의 입장에서 노예제사회설을 일부 수용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기 봉건사회설을 지지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의 입지와 영향이 고려된다. 그런데 새로운 통설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간과할 수 없다.

고조선의 령역이었던 발해 연안 지역은 아세아대륙의 가장 오랜 문화 발상지의 하나였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고 어염(魚鹽)과 철이 풍부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아세아 대륙의 동방에서 철기를 가장 일찍 수용하였는바 이 지역에 거주했던 고조선 인민들이 철제 생산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압록강 이남 지역보다 앞선 시기였다. (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1962), 41~42쪽)

오늘날 료하 유역 일대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철기들은 당시의 고구려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철기를 계승하여 비교적 높은 생산력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4군이 설치된 후에

109) 편집부, 1960,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1960-4, 14쪽.

1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경섭, 2017a, 앞의 논문, 125~130쪽 참조.

111) 홍종욱, 2016, 앞의 논문, 312쪽.



고구려는 이 침략 세력과의 힘겨운 투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문헌들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이 전투에서 용감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1962), 73쪽)

고조선은 아시아 대륙의 동방에서 가장 먼저 철기를 수용하였고, 이를 삼국이 계승했다고 하였다. 이제 중원왕조와 한사군은 투쟁의 대상이었을 뿐 그 영향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주의된다. 그 영향으로 한국사에서 외부의 영향은 배격되었고, 내재적 발전이 강조되었다.<sup>112)</sup> 고대사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57년 김석형은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구하고 빛나는 역사 속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13)</sup> 1956년 박시형은 과학적 연구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sup>114)</sup> 그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처럼 초기 봉건사회설은 1960년대 전반 정립된 북한 역사학계의 통설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반봉건의 현실인식 속에서 소비에트 제도의 수용을 지향하며 제시된 초기 봉건사회설과 아시아적 특수성론은 이미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하였다. 정체성을 내용으로 하였던 아시아적 특수성은 반대로 한국사의 선진성·우월성을 표방하는 논리로 변모해 갔고,<sup>115)</sup> 새로이 제시된 주체사상에 긴박되어 갈 처지였다. 조선사강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112) 홍종욱, 2014, 「反식민주의 역사학에서 反역사학으로-동아시아의 戰後 역사학 과 북한의 역사서술-」, 『역사문제연구』 31, 76~77쪽.

113) 김석형, 1957, 「조선 력사 연구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력사과학』 1957-3, 6~11쪽.

114) 박시형, 1956, 「조선 력사 연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6-6, 2~3쪽.

115) 도면희, 2003, 「북한의 한국사 시대 구분론」,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 푸른역사, 74~76쪽 참조.

## 맺음말

『개요』에서는 삼국시기를 조기 봉건사회로 서술했다. 「조선인민력사강좌」·『조선고대사』·『조선력사』(NARA 소장) 등 1950년대 전반까지 북한의 주요 통사적 저술과 다른 모습이었다. 1950년대 전반까지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삼국시기를 전형적인 노예제사회이자 고대 국가 형성의 시점으로 파악했다.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제시된 백남운의 연구가 통설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통사(상)』(1956)에서부터 한국사의 특수성이 부각되었고, 삼국시기의 사회구성 및 시대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보류되었다. 백남운의 고대사 체계가 도전받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의 사회구성 및 시대구분을 둘러싼 노예제사회설, 조기 봉건사회설, 절충설의 논쟁이었다. 『개요』는 이 와중에 저술된 것으로, 조기 봉건사회설에 입각한 북한 역사학계의 첫 번째 통사였다.

『개요』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교수진의 저술이었다. 교수진의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저술된 것으로, 대학 창설 10주년의 성과이자 그의 공론이었다. 조기 봉건사회설은 강좌의 교원 채희국이 집필했는데, 그는 경성제국대학 내지 서울대학교 사학과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논쟁에서 조기 봉건사회설을 지지한 역사학자는 그 외에 김석형·박시형·정찬영 등으로 조선사강좌 구성원이 다수였다. 이들은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으로, 김광진·박극채·전석담 등 1930년대~해방 전후 조선의 주류 마르크스주의자와 연줄이 이어져 있었다. 조기 봉건사회설은 그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제기되었다. 『개요』의 조기 봉건사회설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의 학문적 배경과 특징을 반영했다.

해방 이후~1950년대 북한 역사학계의 주축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자 그룹으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에 비판적이었다. 조선사강좌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였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그룹은 다시 세계사적 보편성과 아시아적 특수성을 두고 구분되었는데, 조기 봉건사회설은 후자에서 배태되었다. 이들은 사료비판과 이를 통한 실증을 중시했다. 그리고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반봉건의 현실 속에서 소련의 소비에트 제도 수용이란 비약을 추구했다. 조기 봉건사회론도 漢의 문화수용을 통한 원시사회에서 봉건사회로의 도약을 예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사 인식과 전망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아울러 조선사강좌가 공유한 학문적 지향을 보여준다.

조기 봉건사회설은 비록 1960년대 전반 정립된 북한 역사학계의 통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북한의 역사학계에서는 외부의 영향은 배격되었고, 내재적 발전이 강조되었다. 조기 봉건사회설의 학문적 지향과 의미는 퇴색되었고, 새로이 제시된 주체사상에 긴박되어 갈 처지였다. 조선사강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과학원 력사연구소, 1956, 『조선통사(상)』, 과학원 력사연구소
- 과학원 력사연구소, 1962, 『조선통사(상)』, 과학원 력사연구소
- 金洸鎭, 김지현 譯, 2015, 「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국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김광진, 1955a · b,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 과정(상·하)-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준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력사과학』 1955-8 · 9.
- 김광진 · 도유호 外, 1957 『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력사연구소 (1989, 일송정)
- 김근배, 2000,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2-
- 김기석, 2001, 『一卵性 雙生兒의 탄생, 1946-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 김석형, 1957, 「조선 력사 연구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력사과학』 1957-3
- 김석형, 1957, 『조선력사-제1분책-』, 학우서방
- 김선호, 2020, 「국가건설기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고등교육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성철 지음, 정병준 해제, 2009, 『역사 앞에서(개정판)』, 창비
- 金日成, 1949,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組織 및 基本課業에 關하여」, 『歷史諸問題』 1949-5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찬위, 1957, 『조선사개요』, 국립출판사(1996, 한국문화사 영인, 海外우리語文學研究叢書78).
- 김일성종합대학, 1956,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 김일수, 2008, 「이병도와 김석형-실증사학과 주체사학의 분립」, 『역사비평』 82

『조선사 개요』(1957)의 初期 봉건사회설과 金日成宗誼大學 朝鮮사강좌

- 김창호, 1990, 『조선교육사』 3, 사회과학출판사
- 盧泰敦, 1991, 「北韓學界의 三國時代史 研究動向」, 歷史學會 編, 『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閣
- 도면희, 2003, 「북한의 한국사 시대 구분론」,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 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 푸른역사
- 리규춘, 2001, 『김석형전기-신념과 인간』, 금성청년종합출판사
- 림건상, 1955 「서평: 『조선고대사』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5-1
- 閔斗基 編, 1984, 『中國史時代區分論』, 창작과비평사
- 박시형, 1956, 「조선 력사 연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6-6
- 박종기, 2012, 『고려의 부국인, <경계인>으로 살다』, 푸른역사
-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 경제사상-』, 역사비평사
- 白南雲 지음, 하일식 옮김, 1994 『백남운전집1 조선사회경제사』, 이론과 실천
- 白南雲 지음, 하일식 옮김, 1991, 『백남운전집4 彙編』, 이론과 실천
- 서울大學校 二十年史編纂委員會, 1966, 『서울大學校 二十年史』, 서울大學校 出版部
- 송호정, 1989, 「북한에서의 고중세사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
- 송호정, 1997, 「북한 역사학계의 거두 김석형과 한국사 연구」, 『역사비평』 38
- 신효숙, 2003,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교육과학출판사
- 앙드레 슈미트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 여호규, 1996, 「한국 고대의 국가형성」, 『역사와 현실』 19
- 오웬 밀러, 2011, 「해방공간과 전석담의 역사 인식」,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 李光麟, 1988, 「北韓의 歷史學」, 『東亞研究』 16, 西江大 東亞研究所
- 이경섭, 2017a,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韓國史

學史學報』 36

- 李京燮, 2017b, 「白南雲의 단군신화 인식」, 『東國史學』 63
- 李炳熙, 1997 「中世封建社會論」,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19,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 李昇輝, 1988, 「1930年代 日本에서의 아시아的 生産樣式論爭」, 『서울大 東洋史學科 論集』 12
- 이정빈, 2015,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설립과 북한 고조선 연구의 개시(1947~1950)」, 『先史와 古代』 45
- 이충우 · 최종고, 2013,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 이환병, 2002, 「해방직후 맑스주의 역사학자들의 한국사인식」, 『韓國史學史學報』 5
- 임영태, 1989,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8
- 장신, 2011, 「경성제국대학 사학과의 磁場」, 『역사문제연구』 26
- 全錫淡, 1948a, 『朝鮮史教程』, 乙酉文化社
- 全錫淡, 1948b, 『朝鮮社會經濟史』, 博文出版社
- 정근식 · 김윤애 · 임수진, 2017,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7-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정중현, 2019,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 趙東杰, 1998,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 朝鮮歷史編纂委員會, 1949, 「別表(1): 朝鮮歷史編纂委員會構成」, 『歷史諸問題』 1949-5
- 조선력사편찬위원회 편, 1951, 『조선고대사』(1952, 연변교육출판사 번인)
- 朝鮮歷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查部, 1950, 「조선인민력사강좌」, 『歷史諸問題』 1950-3 · 4
- 조인성, 2015, 「신채호 前後三韓說의 의의」, 『韓國史學史學報』 31

- 『조선사 개요』(1957)의 初期 봉건사회설과 金日成종합대학 朝鮮사강좌
- 조형열, 2016, 「1930년대 조선 ‘역사과학’ 계열의 보편특수성 인식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수용 양상」, 『전북사학』 49
- 편집부, 1957, 「학계소식」, 『력사과학』 1957-1·2·6
- 편집부, 1960, 「학계소식」,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1960-1·4
- 프레드리히 엥겔스 지음, 김대웅 옮김, 1985, 『가족의 기원』, 아침
- 하일식, 1994, 「해제: 『朝鮮社會經濟史』의 원시·노예제사회론」, 『백남운 전집1 조선사회경제사』, 이론과 실천
- 홍종욱, 2014, 「反식민주의 역사학에서 反역사학으로-동아시아의 ‘戰後 역사학’과 북한의 역사서술-」, 『역사문제연구』 31
- 홍종욱, 2016, 「보성전문학교에서 金日成종합대학으로-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역사학보』 232
- 『조선역사』(NARA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제공)

## Abstract

# Early feudal social theory and Kim Il Sung University

Lee, Jeongbin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Korean history at Joseon History courses of Kim Il Sung University. Particularly, An Overview of Joseon History(hereinafter called Overview) published in 1957 is noticeable. It was written by the faculty members of Joseon History Course at Kim Il Sung University. In the Overview,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was described as an early feudal society. The faculty members were from history department of Keijo Imperial University-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y were related to mainstream of Marxists from the 1930s to the liberation period. Early feudal social theory was raised through their interactions. It emphasized criticism of historical records and demonstrations, and Asian specificity. This aims at rapid growth through accepting the system of the Soviet Union in anti-feudal circumstance. This perception and prospect of Korean history was the overall atmosphere of Kim Il Sung University and the academic aim shared by the Joseon History courses, which was another ground for adopting early feudal social theory in the Overview.

Keywords : Early feudal social theory, An Overview of Joseon History, Kim Il Sung University, Joseon History courses